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 아가·이사야 —

이영미*

『새한글』 번역 원칙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 세대의 시대 감수성에 맞는 새로운 표현과 원문의 특성을 살린 점입니다. 번역문을 통해 성경을 읽는 독자가 원문의 문학적 특징과 문맥을 알 수 있도록 어순과 반복 등의 문학적 기능을 살려 옮겼습니다. 이 짧은 글에서는 『새한글』의 아가, 이사야 번역에서 새로운 점을 간략히 세 가지 범주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원문의 문학적 특징을 살린 대표적인 사례로 아가의 장르 — 노래 혹은 낭송시 — 를 나타내는 한 기법으로 화자를 표기한 점을 다루었습니다. 사례 본문은 아가 1:4하반입니다. 두 번째 범주로, 다음 세대의 시대 감수성에 맞춰 양성평등의식과 혐오 표현을 넘어선 포용적 번역의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선택한 본문은 아가 1:5-6상반과 이사야 39:7, 56:4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어체에서 현대식 한글 표기를 한 사례로 이사야 7:14을 분석하였습니다.

분량의 제한이 있어, 번역본 비교는 대한성서공회 공인역 한글 성경(『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과 가톨릭 『성경』(2005)을 중심으로 하였고, 필요에 따라 영어 번역본(ESV, NET, KJV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사례 소개의 순서는 편의상 성경의 책 순서를 따랐습니다.

*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the City of New York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신대학교 구약학 교수. ymlee@hs.ac.kr.

1. 원문의 장르와 문학적 특징을 살린 번역: 화자 표기하기

아가는 그 표제, **שִׁיר הַשִּׁירִים**(쉬르 핫쉬림, ‘노래 중의 노래’, 혹은 ‘최고의 노래’)이 보여주듯이 산문이 아니라 노래(시)입니다. 문자로는 소리를 표현할 수 없지만 『새한글』은 노래로서의 아가의 문학적 특징을 최대한 살려내기 위해 목소리의 주인공을 괄호로 표기하였습니다.

칠십인역을 따른 기독교 성경에서 아가(노래중의 노래)는 시편(찬양모음), 잠언(격언모음), 전도서(집회설교자)의 시적인 책들과 짝을 이루지만, 히브리 성경(Tanakh)에서는 다섯 개의 축제 두루마리(메길로트)의 하나로 묶기(오순절), 전도서(장막절), 예레미야애가(아빔월), 에스더(부림절)와 짝을 이룹니다. 아가는 유월절 주간에 읽힌 절기서로, 많은 개별적인 노래들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제의 환경에서 아가는 낭송되거나 노래극으로 공연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봅니다.

각 노래의 목소리는 주인공 (여자), 주인공 (남자)¹⁾, (무리)²⁾, (여자의 오빠들)³⁾이 포함됩니다. 독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자의 혼잣말)⁴⁾로 표현하였습니다. 두안 가렛(D. Garrett)은 한발 더 나아가 아가서를 코러스(합창), 소프라노, 테너의 화음이 어우러지는 노래로 표현하여 번역합니다.⁵⁾ 아가를 문자로 읽기보다 뮤지컬과 같이 노래하는 이들의 화음 섞인 극으로 들어보면 아가가 전하는 사랑의 기쁨과 깊이가 더 잘 전달될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로, 아가 1:4하반의 번역을 비교해 봅니다.

1.1. 아가 1:4하반의 히브리어 본문과 번역본 비교

BHS ⁵	וְנִשְׁמְחָה כָּךְ נִזְכִּירָה לְדָוִד מִיְּשָׁרִים אֶהְבֹּדָה:
『개역개정』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새번역』	(친구들)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1) 주인공 여자와 남자의 목소리는 곳곳에 등장하여 따로 장, 절을 표기하지 않음.

2) 1:8; 3:6-11; 5:9; 6:1, 13; 8:5.

3) 8:8-9.

4) 5:2, 4-7; 8:1-3.

5) 두안 가렛, 폴 R. 하우스, 『Word Biblical Commentary 아가·예레미야애가』 (서울: 솔로몬, 2010), 1-400.

- 『공동개정』 (합창단) 그대 있기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 포도주보다 달콤한 그대 사랑 기리며 노래하려네.
- 『성경』 (친구들) 우리는 당신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리리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함은 당연하지요.
- 『새한글』 (남자)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대를 두고서요.
(여자) 같이 생각해요, 포도주보다 그대의 사랑을요!
사람들이 그대를 사랑하는 것 마땅하지요.

1.2. 『새한글』의 새로운 표현과 원칙 설명

아가 1:4하반의 경우 목소리의 표기가 없으면, 독자들은 두 소절이 동격 평행구(반복)인지, 아니면 두 명의 대화인지, 제3자의 찬양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새한글』은 הִנָּנוּ(베니쉬메하, ‘우리 기뻐해요’)의 1인칭 복수 청유형을 당사자 주인공으로 해석하여 ‘같이’로 번역하고, 덧붙여 ‘(남자)’와 ‘(여자)’를 화자로 표기함으로써 이 구절이 주인공 남자와 여자의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임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단락의 소재목으로도 표기하였습니다.

『개역개정』을 제외하고, 『새번역』, 『공동개정』, 그리고 『성경』(2005)도 화자를 표기하여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자를 제3자로 해석하여, 『새번역』과 『성경』(2005)은 ‘(친구들)’로, 『공동개정』은 ‘(합창단)’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4상반이 남자가 여자를 침실로 데리고 간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구절은 『공동개정』이나 『성경』(2005)에서 해석한 것처럼 ‘(친구들)’이 지극히 사적 공간인 침실에 들어가 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장면이라기보다 두 당사자가 서로의 사랑과 사랑의 기쁨을 화답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3. 『새한글』 아가 1:4하반의 가르침

코헬렛(집회설교자)은 인생의 기쁨을 자랑하며, ‘나를 위해 노래할 남자와 여자들을 두었다.’(전 2:8)고 말합니다. 아가의 음악적 특성을 살려서 화자가 달라질 때마다 목소리의 주인공을 괄호로 표기하여 그 문학적 특성을 살리려는 『새한글』의 번역 의도를 활용해서 아가를 눈으로 읽기보다 소리 내어 낭송해보기를 권합니다.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역할을 나누어 낭송해도 좋을 것입니다.

2. 양성평등적 시각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살린 번역: 아가 1:5-6상반

아가에 나오는 여성 주인공은 현대 여성의 눈으로 보아도 주체적이고 사회적 편견에 맞서 당당한 모습입니다. 외모에 대한 평가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역할 기대도 주인공 여성은 사회와 차별성을 보입니다. 남자 주인공과의 사랑에서도 상호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아가에는 주인공 여성의 주체적 사고와 사회적 편견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는 몇 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 한 예가 아가 1:5-6입니다. 아가 1:5-6은 여자 주인공이 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내면화하지 않지만, 다른 한편에서 그러한 편견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동시에 노래합니다.

『새한글』의 아가 1:5-6의 번역 사례는 여덟 소절의 짧은 단락이지만 아가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노래 중 주제의 통일과 구조의 통일성을 보여주는 좋은 구절입니다. 『새한글』은 여성의 하얀 피부가 이상적인 미(美)의 보편적 기준으로 통용되는 현대의 사회적 편견을 배제한 번역을 통해 자신의 미에 자부심을 가진 여자 주인공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현대의 검은색 피부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새로운 표현을 번역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인공 여자가 부르는 1:5-6에서 분량상 1:5-6상반만 역본을 비교하였습니다.

2.1. 히브리어 본문과 번역본 비교

BHS ⁵	שְׁחֹרָה אֲנִי וְנָאֵהָ בְּנֹת יְרוּשָׁלַם כְּאֵהֶלִי קָדָר כִּירִיעוֹת שְׁלֹמֹה: 5 אֶלְתֵּרֶאֱנִי שְׂאֲנִי שְׁחֹרָה־תְּתִי שְׁשׁוּפְתֵי הַשָּׁמֶשׁ 6
『개역개정』	5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나 아름다우니 게 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6 내가 햇볕에 쬘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u>훑겨보지</u> 말 것은 ...
『새번역』	5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 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6 내가 검 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u>깎보지</u> 말아라. ...
『공동개정』	5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나 비록 가뭇하지만 케달 의 천막처럼, 실마에 두른 휘장처럼 귀엽다는구나. 6 가뭇하다고 <u>깎보지</u> 마라. ... <u>햇볕에 그을</u> 은 탓이란 다. ...

『성경』	5 (여자) <u>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나 비록 가뭇하지만 어여쁘답니다. 케다르의 천막처럼 / 솔로몬의 휘장처 럼. 6 내가 가무잡잡하다고 <u>뵈히 보지 말아요. 햇볕에 그을렸을 뿐이니가요. ...</u></u>
『새한글』	5 (여자) 나는 <u>검으면서 곱지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여! 게달의 텐트 같고, 솔로몬의 커튼 같지요. 6 내가 거무스름하다고 <u>쳐다보지들 마세요. 해가 내리쬘 탓 에 그렇게 된 거예요. ...</u></u>

2.2. 『새한글』에서 새로운 표현과 원칙 설명

(1) 어순

וְהָיָה אֲנִי וְנָאֶבָה בְּנוֹת יְרוּשָׁלַם (쉐호라 아니 베나바 베노트 예루살라임, ‘나는 검으면서 곱지요, 예루살렘 여자들이여!’)

한글 어순에서는 호격이 먼저 나오고 명령 혹은 간구하는 내용이 뒤따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새한글』은 원문의 어순을 그대로 살려 번역에 반영했습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성경』(2005) 모두 호격을 먼저 나오도록 어순을 배열합니다. 호격이 뒤로 간 이 어순은 주인공 여자가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의 조급함을 반영해주는 수사학적 효과도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2) 개별 표현

① וְנָאֶבָה אֲנִי (쉐호라 아니 베나바, ‘나는 검으면서 곱지요’)의 번역
『개역개정』과 『공동개정』, 그리고 『성경』(2005)은 여성의 첫 말의 두 번째 단어, וְנָאֶבָה(베나바)의 נ(바브) 접속사를 ‘그러나’로 번역합니다. 검은 피부는 미(美)의 척도에서 하위라는 번역자의 편견이 깔려있기 때문에 『개역개정』과 『공동개정』, 『성경』(2005)은 원문에 없는 ‘비록’이라는 말을 첨가해서 번역하였습니다. 『새번역』은 ‘검어서 아름답다’는 인과성의 뉘앙스를 반영하여 번역함으로써 검다는 것을 미(美)의 척도에서 상위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히브리어 접속사 נ(바브)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또한’ 등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문맥에서 그 의미를 찾아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가 1:5의 문학적 맥락을 살펴보면, 나는 ‘검다(חֹשֶׁךְ[샤호크])’, ‘곱다(נְאֻבָּה[나베])’가 평행구인 ‘게달의 텐트(קֶדֶר כְּאֹהֶלֶי כְּעֹדֶרֶת כְּדָרִי[케오홀레이 케다르])’ 색과 ‘솔로몬의 커튼(כִּרְיֹת שְׁלֹמֹה[키리오투 쉘로모])’에 의해 동의적 평행의 관계를 이룹니다. ‘게달(קֶדֶר[케다르])’은 아랍 유목민족으로 앓시

리아의 앓수르바니팔 왕에게 패배당한 원정이 고대 근동 문헌에 기록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아랍 유목민족의 이동 거처로 쓰였던 계달의 텐트는 짐승의 가죽으로 검은 계통의 색감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커튼은 왕실의 커튼인 만큼 정교한 장인에 의해 만들어졌고 색감, 장식 등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고운 천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은유에 사용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평행구의 이미지를 살려 여자의 말을 복기하면 ‘나는 계달의 텐트처럼 겹다 // 나는 솔로몬의 커튼처럼 곱다’로 풀이됩니다. 계달의 텐트와 솔로몬의 커튼은 반전이나 호, 불호의 대치가 아닌 동의 반복이므로 만일 이 둘을 ו(바브)로 연결한다면 ‘그리고’가 적절합니다. 따라서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외모를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설명한 첫 구절은 ‘나는 겹으면서 곱지요’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② בְּנוֹת יְרוּשָׁלַם (베노트 예루살라임, ‘예루살렘 여자들여!’)의 번역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의 딸들’을 뜻하는 בְּנוֹת יְרוּשָׁלַם (베노트 예루살라임)은 아가서에 1:5; 2:7; 3:5; 5:8, 16; 8:4 등 6번 언급됩니다. 이 표현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딸을 특화시켜 표현하려는 의도보다는 예루살렘의 주민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 호칭은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성을 특정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새번역』, 『공동개정』, 『성경』(2005)은 이 단어를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로 번역합니다. 『개역개정』은 ‘예루살렘의 딸’로 직역합니다. 가족 내 여성의 역할(‘딸’[『개역개정』]) 혹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가리키는 ‘아가씨’라는 『공동개정』의 호칭이 문맥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새한글』은 ‘예루살렘의 여자들’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③ כִּירְיֹעוֹת שְׁלֹמֹה (키리오트 셀로모, ‘계달의 텐트’)과 אֶל־תִּרְאֵנִי (알-티르우니, ‘쳐다보지들 마세요’)의 번역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장막’과 ‘휘장’으로 『공동개정』과 『성경』(2005)은 ‘천막’과 ‘휘장’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새한글』은 필요한 경우 일상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도 적극 활용하여 번역하는 원칙에 따라 여기서는 계달의 장막을 ‘텐트’로, 솔로몬의 휘장을 ‘커튼’으로 새롭게 표현하였습니다.

④ אֶל־תִּרְאֵנִי (알-티르우니, ‘쳐다보지들 마세요’)의 번역

히브리어 동사 רָאָה (라아)는 ‘보다’는 동작에 대한 단순한 표현입니다. 이를 ‘훑여보지 말 것’(『개역개정』), ‘깎보지 말아라’(『새번역』), ‘깎보지 마라’(『공동개정』), ‘뵈히 보지 말아요’(『성경』[2005])고 옮긴 이유는 주인공 여자의 검은 피부에 대한 경시의 표현을 담기 위한 번역자의 의도가 반영

된 결과일 것입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의 번역은 검은 여자의 피부가 경시의 대상이라는 편견을 강하게 담았고, 『성경』(2005)은 다른 세 개의 번역보다는 중립적인 동사 표현을 선택했습니다. 『새한글』은 6절의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한 여자 주인공의 호소가 사회적 편견을 나에게 투영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임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경멸의 의미를 담기보다는 완화된 표현으로 ‘쳐다보지들 마세요’로 번역했습니다.

이어지는 병행구 $\text{הַשְׂמִיךְ הַשְׂמִיךְ}$ (셋쉐자파트니 핫샤메쉬, ‘해가 나를 내리쬐’)에 쓰인 히브리 동사 הִשָּׂא (샤자프)는 ‘응시하다’는 뜻이 있는데, 저자의 의도적인 언어유희로 보입니다. 한국어로는 두 동사의 상응하는 의미를 반영할 동사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두 동사의 원뜻이 상응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אֶל-הַרְאֹנִי (알-티르우니)를 ‘뵈히 보지 말아요’라고 번역한 『성경』(2005)의 선택도 좋아 보입니다.

2.3. 『새한글』 아가 1:5-6상반의 가르침

아가 1:5-6상반의 『새한글』 번역은 번역자의 신념이나 그 시대의 사회적 통념이 지나치게 반영된 표현보다는 문맥의 의미를 반영하면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이 경전에 적합하고 독자의 편견을 유도 혹은 강화하지 않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3. 이사야 7:14하반

3.1. 히브리어 본문과 번역본 비교

BHS ⁵	<u>הִנֵּה הַעֲלָמָה הָרָה וְיֹלְדָת בֶּן וְקָרָאת שְׁמוֹ עִמְמַנּוּאֵל:</u>
LXX	<u>ἰδοὺ ἡ παρθένος ἐν γαστρὶ ἔξει καὶ τέξεται υἱόν, καὶ καλέσεις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Ἑμμανουήλ·</u>
『개역개정』	<u>보라 처녀가 잉태하여</u> 아들을 낳을 것이요 <u>그의 이름을</u> <u>임마누엘이라 하리라</u>
『새번역』	<u>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u> 아들을 낳을 것이며, <u>그가</u> <u>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u>
『공동개정』	<u>처녀가 잉태하여</u> 아들을 낳고 <u>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u>
『성경』	<u>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u> 아들을 낳고 <u>그 이름</u>

	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새한글』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 부를 것 입니다.
ESV	Behold, the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shall call his name Immanuel.
NET	Look, this young woman is about to conceive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You, young woman, will name him Immanuel.

3.2. 『새한글』에서 새로운 표현과 원칙 설명

(1) 어순

① הִנֵּה(히네, ‘보세요’)

『개역개정』, 『새번역』, 『성경』(2005)은 모두 ‘히네’의 특성을 살려 ‘보라’는 강조의 호소를 문두에 적습니다. 『공동개정』은 이를 생략하고 번역하였습니다. 『새한글』은 히브리어 הִנֵּה(히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수사학적 기능을 살려 매번 이를 번역하였습니다.

② שְׁמוֹ עִמָּנוּאֵל וְקָרָאתָ(베카라트 쉼모 임마누-엘, ‘그러고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 부를 것입니다.’)

대화를 간접 인용으로 표현할 때 ‘이르시되’와 같은 인용 동사는 한국어의 구어에서 ‘x라고 일렀다(말하였다)’처럼 인용절 뒤에 움이 자연스럽지만 다른 번역본들은 ‘x라 하더라’의 구조를 보였습니다. 이는 고소설 이야기체의 전형적인 인용방식입니다.⁶⁾ וְקָרָאתָ(베카라트, ‘그리고 그녀가 부를 것이다’)는 3인칭 여성단수 주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새한글』은 인용방식보다 주어와 능동동사를 살려 ‘그러고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 부를 것입니다.’로 번역하였습니다. ESV, NET의 경우도 젊은 여성을 주어로 능동동사를 살려 번역합니다.

(2) 개별 표현

① הָאִלְמָה(하알마, ‘처녀’)의 번역

히브리어 הָאִלְמָה(하알마)는 직역하면 ‘그 젊은 여자’입니다. 정관사가 붙어있는 점에서 학자들은 이사야 예언이 행해지는 당시의 특정된 여성을 지칭할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그리고 אִלְמָה(알마)에는 처녀라는 의미가 포함

6) 박동현, 민현식, 이두희, 『다음 세대를 위한 공인역 『새한글성경』 간추린 번역 해설집』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5), 207.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태복음의 수태고지를 전제한 교회 전통은 이사야 7:14의 번역에 히브리어 용어 대신 칠십인역의 παρθένος(파르쎌노스)를 따른 번역을 선호했습니다. 한글 성경의 경우도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새한글』 모두 ‘처녀’로 번역하였고, 『성경』(2005)만 ‘젊은 여인’으로 번역합니다. 영어 역본 중에서도 NET는 ‘this young woman’으로, ESV는 ‘the virgin’으로 번역합니다. 『새한글』은 히브리성경의 원문에 입각한 번역을 존중하는 원칙으로 ‘젊은 여인’으로 초역을 제안하였지만, 공동 편집의 과정에서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젊은 여자’ 대신 ‘처녀’로 번역하였습니다. 원문에 입각한 번역의 원칙과 교회 전통의 존중 사이에서의 부조화를 맥락에서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고, ‘처녀’라는 단어가 가진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처녀’로 번역하기로 결정된 점은 아쉬웠습니다.

② הָרָה(하라, ‘아이를 가져’)

히브리 동사 הָרָה(하레)는 ‘임신하다’의 뜻을 지닙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성경』(2005)은 이를 모두 ‘임태하여’로 옮깁니다. ‘임태하다,’ ‘임신하다’는 한자어를 담은 표현인데, 『새한글』은 이를 순한글, ‘아이를 가져’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고전어를 현대어로 번역하는 원칙을 따른 결과입니다.

(3) 신약의 구약 인용

추가로 『새한글』은 신약성서의 구약 인용 시 상응하는 표현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점을 선보입니다. 이사야 7:14를 인용한 마태복음 1:23의 이사야 예언이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칠십인역에서의 인용임을 밝히 한글 번역본은 『새한글』 뿐입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가톨릭 『성경』(2005)은 각주를 통해 인용된 구약 본문(이사야 7:14)만 제시합니다. 아울러 『새한글』은 마태복음 1:23의 그리스어 ἐν γαστρὶ ἔξει(엔 가스트리 헤세이, ‘자궁 안에 품은’)을 구약에서 ‘아이를 가져’로 번역한 대목과 일관성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GNT ⁵	Ἰδοὺ ἡ παρθένος ἐν γαστρὶ ἔξει καὶ τέξεται υἱόν, καὶ καλέσουσιν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Ἐμμανουήλ, ὃ ἐστὶν μεθερμηνεύόμενον Μεθ’ ἡμῶν ὁ Θεός.
『새한글』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텐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이름을 번역하여 옮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3.3. 『새한글』 이사야 7:14하반의 가르침

다음 세대의 시대 감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표현에서 ‘잉태하다’ 등의 한자어나 ‘하리라’는 고소설 이야기체의 전형적인 인용 방식을 지양하였습니다. 고어체로 경전의 위엄을 고집하기보다 다음 세대가 사용하는 평이한 어체로 이해도를 높이는 독자 친화적인 번역과 표현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이사야 39:7

4.1. 히브리어 본문, 칠십인역, 번역본 비교

BHS ⁵	וּמִבְּנֵיךָ אֲשֶׁר יֵצְאוּ מִמֶּךָּ אֲשֶׁר תוֹלִיד יִקְחוּ וְהָיוּ סְרִיסִים בְּהִיכַל מֶלֶךְ בָּבֶל:
LXX	ὅτι καὶ ἀπὸ τῶν τέκνων σου ὧν γεννήσας, λήμψονται καὶ ποιήσουσιν <u>σπάδοντας ἐν τῷ οἴκῳ τοῦ βασιλέως τῶν</u> <u>Βαβυλωνίων.</u>
『개역개정』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u>바벨론</u> <u>왕궁의 환관</u> 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새번역』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 가서, <u>바빌론 왕궁의 환관</u> 이 될 것이다.’”
『공동개정』	너에게서 태어날 너의 친아들 중 더러는 <u>바빌론 왕궁</u> <u>으로 끌려가 내시</u> 가 되리라.”
『성경』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들 가운데 더러는 끌려가서 <u>바</u> <u>빌론 왕궁의 내시</u> 가 될 것이다.
『새한글』	너한테서 태어날 아들, 네가 낳을 아들 가운데서 몇은 잡혀가서 <u>바빌론 임금의 궁전에서 고위 관리</u> 가 될 것 이다.”

4.2. 『새한글』에서 새로운 표현과 원칙 설명

(1) 어순

אֲשֶׁר תוֹלִיד … וּמִבְּנֵיךָ(우밋바네이카 … 아쉐르 톨리드, ‘태어날 아들, 네가 낳을 아들’)

『개역개정』은 이사야 39:7상반을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로, 『새번역』은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으로, 『공동개정』은 ‘너

에게서 태어날 너의 친아들 중 더러는’으로, 그리고 『성경』(2005)은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들 가운데 더러는’으로 옮깁니다. 모든 번역이 원문에서의 단어 반복을 하나로 번역합니다. 『새한글』은 반복되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에 반영하여 ‘너한테서 태어날 아들, 네가 낳을 아들 가운데서 몇은’으로 번역하였습니다.

(2) 개별 표현

① מֶלֶךְ בָּבֶל(베헤이칼 멜레크 바벨, ‘바빌론 임금의 궁전에서’)의 번역

왕이라는 용어와 궁전을 합하여 번역했지만, 여기서는 임금과 궁전으로 구별하여 원문의 분리된 단어를 살려 번역하였습니다.

② סָרִיס(싸리썸, ‘고위 관리’)의 번역

『새한글』은 특정 사회 계층의 사람을 비하하는 느낌을 주는 낱말이나 표현은 문맥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말로 번역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스트롱스에 따르면, 구약에서 סָרִיס(싸리쓰)는 42번 언급되는데, 칠십인역은 이 단어를 σπάδων(스파돈), ευνούχος(유누코스)로 옮기거나 생략합니다. 이사야 39:7의 경우는 σπάδοντας(스파돈타스)로 옮깁니다. 에드윈 야마구치(E. Yamaguchi)는 סָרִיס(싸리쓰)는 고대 아카드 제국(기원전 25~23세기)의 ‘싸 레시(sa resi, ‘우두머리’)'에서 유래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⁷⁾ 사극의 거세된 궁중 관리에 익숙한 한국인 독자들에게 סָרִיס(싸리썸)을 표현하는 번역어로 내시, 고자, 환관, 내관 등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환관’으로, 『공동개정』과 『성경』(2005)은 ‘내시’로 옮깁니다. 영어번역본에서 JPS는 ‘officers’로 옮긴 반면, 대부분의 영어번역본(KJV, NIV, NJB, NRS)도 거세된 궁중의 관리를 전제한 ‘eunuchs’로 번역합니다. 한글 호칭의 경우 내시나 내관보다는 환관이라는 단어가 좀 더 포용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환관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온 말입니다. 환관(宦官)의 환(宦)은 ‘섬기다’라는 뜻으로 관직을 가리키며, ‘환관’은 옛날 중국에서 성적인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성기가 잘린 남자를 궁 안에 불러들여 섬기는 관직에 채용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군주 옆에 있었으며 후궁 처소에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סָרִיס(싸리쓰)가 관리가 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위해 거세당하였든지, 제3의 성으로 태어난 자로서 관리로 종사하였든지 간에 이사야 39:7의 경우 젠더에 대한 관심보다는 관리로서의 직분이 더 핵심이라고

7) Edwin M. Yamauchi, “Was Nehemiah the Cupbearer a Eunuch?”,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 Wissenschaft* 92:1(1980), 140-41.

판단됩니다. 따라서 『새한글』은 ‘환관’ 대신, ‘고위 관리’로 중립적 표현으로 순화하여 번역하였습니다.

4.3. 『새한글』 이사야 39:7의 가르침

고대 문서로서의 구약성경을 그 시대의 문화를 재생하여 당대의 직함의 의미를 살리는 번역이 중요하고, 다른 문화나 시대의 용어로 대체할 때 조심스러운 선택을 함으로써 경전의 고유성을 보존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5. 이사야 56:4

5.1. 히브리어 본문, 칠십인역, 번역본 비교

BHS ⁵	כִּי־כֹה אָמַר יְהוָה לַסְּרִיסִים אֲשֶׁר יִשְׁמְרוּ אֶת־שְׁבוּתוֹתַי וּבְחֶרֶד בְּאֲשֶׁר חָפְצָתִי וּמְחֻזְקִים בְּכִרְיֹתַי:
LXX	<u>τάδε λέγει κύριος Τοῖς εὐνοῦχοις</u> ὅσοι ἐὰν φυλάσσωνται τὰ σάββατά μου καὶ ἐκλέξωνται ἃ ἐγὼ θέλω καὶ ἀντέχωνται τῆς διαθήκης μου,
『개역개정』	<u>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u>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 게 잡는 <u>고자들에게는</u>
『새번역』	이러한 사람들에게 <u>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 록 고자라 하더라도,</u>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 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공동개정』	<u>야훼께서 말씀하신다. “고자라도</u> 나의 안식일을 지키 고 나의 뜻에 맞는 일만 하고 나의 계약을 굳게 지키면,
『성경』	<u>정녕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u> “나의 안식일을 지 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나의 계약을 준수 하는 <u>고자들에게는</u>
『새한글』	(예언자) <u>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u> (하나님) “ <u>성기능에 장애가 있는 남자들</u> 이라도 나의 안식일들을 지킨다고 하자.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골라 하고 나와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킨다고 하자.
ESV	<u>For thus says the LORD:</u> “To <u>the eunuchs</u> who keep my

Sabbaths, who choose the things that please me and hold
fast my covenant,
NET **For this is what the LORD says:** “For **the eunuchs** who
observe my Sabbaths and choose what pleases me and are
faithful to my covenant,

5.2. 『새한글』에서 새로운 표현과 원칙 설명

(1) 어순

יְהוָה אָמַר כִּי-כֹה אֶדְבָּר (키-코 아마르 아도나이, ‘[예언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

문장에서 대부분의 번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로 번역하여 원문에서의 כִּי-כֹה (키-코, ‘그리고 이렇다’)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위하여 『새한글』은 구분선의 앞과 뒤를 (예언자)와 (하나님)으로 화자 표기를 함으로써 의미를 살렸습니다. 구분을 더 명확히 하는 번역 기법으로 예언자의 말과 하나님의 직접화법을 구분하기 위한 화자 표기 방식을 사용한다는 원칙에 따른 결과입니다. 『새번역』에서는 인용 부호로 화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큰따옴표로 구분하였습니다. 『새한글』은 선지자의 예언을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 구분하여 마치 하나님과 선지자가 연극 대본처럼 대화를 주고받듯 표시하여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였습니다.

(2) 개별 표현

סָרִיסִים(싸리썸, ‘성기능에 장애가 있는 남자들’)의 번역

위의 사례에서도 언급했지만, 구약성서의 סָרִיסִים(싸리쓰)를 칠십인역은 이 단어를 σπάδων(스파돈), 혹은 ευνούχος(유누코스)로 옮겼는데, 이사야 56:4의 경우는 ευνούχοις(유누코이스)로 번역됩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를 eunuchs (ESV, NET, NIV, NJB, KJV, NRS 등)로 옮깁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성경』(2005) 모두 ‘고자’로 번역합니다. 같은 히브리어 용어이지만, 이사야 39:7의 경우 סָרִיסִים(싸리쓰)가 관직을 지칭하는 용어였다면, 여기서는 생식기의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한글』은 기존의 고자라는 번역의 취지는 동의하면서도 특정 사회 계층의 사람을 비하하는 느낌을 주는 낱말이나 표현은 포용적 언어로 순화한다는 원칙에 맞춰, 좀 길지만 이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는 번역을 했습니다.

5.3. 『새한글』 이사야 56:4의 가르침

이사야 39:7과 동일한 히브리어이지만 칠십인역에서 סָרִיס(싸리쓰)가 다른 용어로 번역된 것처럼, 현대 번역본에서도 그 문맥에 따라 원 본문의 취지를 살려 다르게 번역한 점은 성경을 독자의 관점이 아니라 본문의 원 독자의 관점에서 읽으려고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특정 부류의 사람을 비하하는 느낌을 주는 표현은 풀어쓰면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포용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환대하는 교회공동체 형성과 서로를 향한 관대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어>(Keywords)

새한글성경, 아가, 이사야, 포용적 번역, 다음 세대를 위한 번역.

New Korean Translation, The Song of Songs, Isaiah, Inclusive translation, translation for next generation.

(투고 일자: 2025년 2월 28일, 심사 일자: 2025년 3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3월 27일)